

# “한국인 평균수명 길지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세계 평균에 비해 비교적 길고 건강한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건강 상태에 비해 자기의 건강이 좋다고 보는 비율이 떨어져 병원을 찾는 횟수가 많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동아시아연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발표한 보건통계 2019의 결과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로 나타났다. 2017년에 태어난 아기가 평균적으로 이 나이까지 살 수 있다는 뜻이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3.5세나 증가했으며, 일본(84.2세)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80.7세다.

보건복지부는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교육수준이 향상된데다 무엇보다도 의료서비스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요 질환의 사망률은 대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5.2명으로 OECD 평균(200.0명)보다 낮았고 순환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147.4명으로 OECD 평균(279.7명)에 훨씬 못 미쳤다.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56.1명으로 OECD 평균(62.4명)보다 낮았고,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34.8명으로 OECD 평균(110.6명)보다 훨씬

낮았다. 치매로 인한 사망률도 12.3명으로 OECD 평균(24.3명)보다 낮았다. 다만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75.9명, OECD 평균 66.0명)과 자살사망률(24.6명, OECD 평균 11.7명)만 조금 높았다.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은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흡연 인구(17.5%)와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도(8.7L)도 OECD 평균 수준이었다. 흡연율은 2007년(24.0%)부터 10년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소비량 역시 2007년(9.3L)이래로 점차 감소해왔다. 그만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비만 인구는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낮았다. 하지만 과체중과 비만 인구 비율은 2007년(31.0%)부터 2017년(33.7%)까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인지율)은 29.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7.9%였다.

이 때문인지 한국은 OECD 국가 중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6.6회로 가장 많았고 병원에 머무는 기간도 18.5일로 가장 길었다. 국민 1인당 의료비와 의약품 비용도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F-35B 탑재 가능 ‘경항공모함’ 건조 추진

한국 군당국의 대형수송함 건조사업이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탑재도 가능한 ‘경항공모함급’ 건조로 추진된다. 2030년 전후로 한국 해군의 숙원인 항공모함 전력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군 소식통은 이날 일 “지난 12일 박한기 합참의장과 3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대형수송함-II’ 사업이 포함된 장기전력소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수송함-II는 만재 배수량이 3만 안팎으로 현재 군이 보유한 독도함과 마라도함(1만9,000t급)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대형수송함-II는 갑판을 특수재질로 설계돼 함재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으로 평가된다.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춘 F-35B 전투기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대형수송함-II 건조사업이 장기소요로 결정된 만큼 향후 1-2년 내에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면 사업이 본격화돼 2020년대 중반 이후 건조에 들어가 2030년 전후로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이 대형수송함-II 건조사업

을 통해 경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의 항모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일본은 이즈모급 2척을 2023년 경 항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F-35B를 탑재하기 위해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이미 6만급 라오닝·산둥 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규모가 더 큰 항공모함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한국 해군은 작년 8월10일 ‘LPH(대형수송함) 미래항공기 탑재운용을 위한 개조·개장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과제 입찰공고를 냈다. 이 연구과제는 해군의 독도급 대형수송함에서 F-35B를 운용하고자 할 때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 개조 방법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군이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본격화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불러왔다.

국방부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륙, 해상기동부대작전, 재해·재난 지원 등을 위한 다목적함정인 대형수송함-II 사업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35B 전투기 탑재 여부와 탑재 기종, 항모로 운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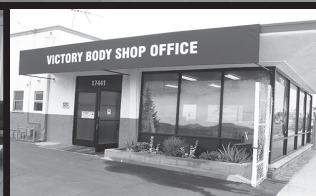
# 빅토리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